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018.10 [26~28]

[앞부분 줄거리] ‘나’는 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8년 만에 제주도를 찾는다. 제사를 기다리는 동안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죽은 ‘순이 삼촌’(제주도에서는 존수를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남녀 구별 없이 ‘삼촌’이라고 부름.) 이야기를 나누며 30년 전 마을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다시 떠올린다.

그의 속삭이는 말로는 순이 삼촌은 심한 신경 쇠약 환자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환청 증세까지 있어 시골에 있을 때도, 한 적이 없는 말을 들었노라고, 보지도 않은 흉을 봤다고 따지고 들기를 잘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밥 많이 먹는 식모’라는 것도, 우리에게 폼은 오히려 모두 환청 때문에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역시 그랬었구나. 옆에서 얘기를 들던 아내는 방정맞게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었다.

[A] 당신의 신경 쇠약은 지독한 결벽증과도 서로 얽힌 것인데 이런 증세는 꽤나 해묵은 것이라고 했다. 그건 사오년 전 콩 두 말을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얻은 병이었다. 하루는 이웃집에서 길에 멍석을 펴고 내다 던 메주콩 두 말이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그 혐의를 평소 사이가 안 좋던 순이 삼촌에게 씌워 놓았다. 두 집은 서로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옥신각신 다투다가 그 집 여편네가 파출소에 가서 따지자고 당신의 팔을 잡아끌었던 모양인데 파출소 가자는 말에 당신은 대변에 기가 죽으면서 거기는 못 간다고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당신이 콩을 훔친 것으로 소문나 버릴 밖에. 당신이 그전서부터 파출소를 피해 다니는 이상한 기괴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전 일단 씌워진 누명을 벗기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신은 1949년에 있었던 마을 소각 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어, 불에 놀란 사람 부지깽이만 봐도 놀란다는 격으로 군인이나 순경을 먼뵈로만 봐도 질질하고 지레 피하던 신경 증세가 진작부터 있어 온 터였다.

(중략)

[B] 군인들이 이렇게 돼지 볼듯 사람들을 몰고 우리 시야 밖으로 사라지고 나면 얼마 없어 ㉠ 일제 사격 총소리가 콩뽀뽀 일어나곤 했다. 통곡 소리가 친지를 진동했다. 할머니도 큰아버지도 길수 형도 나도 울었다. 우익 인사 가족들도 뉘 놓고 엉엉 울고 있었다. 우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외양간에 매인 채 불에 타 죽는 ㉡ 소 울음소리와 말 울음소리도 처절하게 들려왔다. 중낮부터 시작된 이런 이수라장은 저물녘까지 지긋지긋하게 계속되었다.

길수 형이 말했다.

“그때 혼자 살아난 순이 삼촌 허는 말을 들으란, 군인들이 일주 도로변 옹팡진 밭에다가 사람들을 밀어붙였는데, 사름마다 발이 안 들어가젠 밭담 우엔 었디어전 이마뺨을 쪼사 피를 찰찰 흘리며 살려 달렌 하던 모양입니다.”

“쫓쫓쫓, 운동장에 뱉겨져 널려진 ㉢ 입자 없는 고무신을 다 모아 놓으민 아마도 가매니로 하나는 실히 되었을 거여, 죽은 사람 몇 백 명이나 되까?”

하고 작은 당숙이 말하자 길수 형은 낮을 모질게 찌푸리며 말을 씌어뻘었다.

“면에서는 이 집에 고무마 뗏 가마 내고 저 집에 유채 뗏 가마 소출 냈는지는 알아 가도 그날 죽은 사람 수효는 이날 이

때 한 번도 통계 잡아 보지 않으니, 내에 참. 내 생각엔 오백 명은 넘는 것 같으니, 한 육백 명 안 되까 마썰? 한 번에 오륙십 명씩 열한 번에 몰아가시니까.”

열한 번째로 끌려가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운수 대통한 사람들이었다. 페마침 대대장 차가 도착하여 총살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 불행한 사건에도 예외 없이 ‘만약’이란 가정이 따라왔다. 만약 대대장이 읍에서부터 타고 오던 지프차가 도중에 고장만 나지 않았더라면 한 시간 더 일찍 도착했을 터이고, 그렇게 되면 삼백 명이나 사백 명은 더 살렸을 것이다. 따라서 희생자는 백 명 내외로 줄어든 것이고, 또 적에게 오염됐다고 판단된 부락을 토벌해서 백 명 정도의 이적 행위자를 사살했다면 그건 수궁할 만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피살자 육백 명이란 수효는 ㉣ 옥석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사격을 의미했다.

“고모부님, 대대장이 말한 차 고장은 핑계가 아니까 마썰? 일개 중대장이 대대장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이서 마썰?”

고모부는 그 당시 토벌군으로 애월면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할 터였다. 고모부는 한때 인근 부락인 함덕리에 주둔했던 서북청년으로만 구성된 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 마침 사건 수개월 전에 애월로 이동해 갔던 것이었다. 신희 초라 고모도 따라갔었다.

“그 당시엔 중대장 즉결 처분권이란 것이 있을 때랐쥬. 또 그들이 전투 사령부의 작전 명령에 따라 행동했던 해도 작전 명령을 잘못 해석하였을 공산이 커. 난 좀벌 생활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것도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의 일부일 거라. 쉬운 말로 소개 작전이란 거쥬. 견벽청야 작전이란 것이 뭐냐면 손자병법에서 따온 것이이래는데, 공비를 소탕할 때 먼저 토벌군으로 벽을 쌓아 병풍을 만들고 그 후 들을 말끔히 청소하는 거라. 산간벽촌을 일일이 다 보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말이며. 그러니 일정한 거점만 확보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비워 버려 공비가 발붙일 여지가 없게 하자는 궁리이었쥬. 그런데 인원과 물자를 비워 버리라는 대목에서 그만 잘못 일이 글러진 거라. 작전 지역 내의 인원과 물자를 안전 지역으로 후송하라는 뜻이 인원을 전원 총살하고 물자를 전부 소각하라는 것으로 둔갑하고 말아시니 말이며.”

“아니, 고모부님도 참, 그 말을 끈이들염수파? 그건 옷대거리들이 책임을 모면해 보첸 둘러대는 핑계라 마썰. 우리 부락처럼 폐죽음당한 곳이 한둘이 아니고 이 섬을 뺀 돌아가명수없이 많은데 그게 다 작전 명령을 잘못 해석해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우파? 말도 안 되는 소리우다. 이 작전 명령 자체가 작전 지역의 민간인을 전부 총살하라는 게 틀림없이 마썰.”

- 현기영, 「순이 삼촌」 -



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과거 사건에 대한 추측의 진술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감각적으로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세밀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④ [A]는 공간을 병치하는 방식을 통해, [B]는 시간을 교차하는 방식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⑤ [A]는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B]는 직접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읍광진 밭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일어난 참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 ② ㉡: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 ③ ㉢: 운동장에서 끌려 나가 희생당한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④ ㉣: 운수가 좋아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핑계 삼아 무차별 사격이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⑤ ㉣: 고모부는 당시 운동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겪었던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개인의 기억이 강렬할 경우, 이 기억은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여러 사람과 공유되면 기억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기억은 같은 사건이라도 기억 주체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기억과는 다르게 구성된 가해자들의 기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들의 기억에 명분을 부여한 논리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된다.

- ① '전투 사령부'의 '견벽청야' 명령은 역사적 사건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스스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 나중에 꾸며낸 것이겠군.
- ② '길수 형'이 '순이 삼촌'에게 전해 들은 '그때'의 사건을 방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기억이 여러 사람과 공유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군인이나 순경'을 먼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피하는 '순이 삼촌'의 모습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그건 옷대加里들이 책임을 모면해 보젠 둘러대는 핑계라 마썸.'이라는 말에는, 가해자들의 기억을 구성한 논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당시 토벌군이었던 '고모부'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길수 형'이나 '나'와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피해자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겠군.



<보 기>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개인의 기억이 강렬할 경우, 이 기억은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여러 사람과 공유되던 기억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기억은 같은 사건이라도 기억 주체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기억과는 다르게 구성된 가해자들의 기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들의 기억에 명분을 부여한 논리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된다.

✓ 읽기 전 활동

과거의 사건이 개인, 집단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작품 내부에서 특정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등장인물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자신들의 기억과는 다르게 구성된 가해자들의 기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억에 명분을 부여한 논리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는다는 점을 기억해둔다면 좋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나’는 할아버지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8년 만에 제주도를 찾는다. 제사를 기다리는 동안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죽은 ‘순이 삼촌’(제주도에서는 손수를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 어른을 남녀 구별 없이 ‘삼촌’이라고 부름.) 이야기를 나누며 30년 전 마을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다시 떠올린다.

그의 속삭이는 말로는 순이 삼촌은 심한 신경 쇠약 환자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환청 증세까지 있어 시골에 있을 때도, 한적이 없는 말을 들었노라고, 보지도 않은 흉을 봤다고 따지고 들기를 즐겼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밥 많이 먹는 식모’라는 것도, 우리에게 품은 오해도 모두 환청 때문에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역시 그랬었구나. 옆에서 얘기를 들던 아내는 방정맞게 안도의 한숨까지 내쉬었다.

당신의 신경 쇠약은 지독한 결벽증과도 서로 얽힌 것인데 이런 증세는 꽤나 해묵은 것이라고 했다. 그건 사오 년 전 콩 두 말을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얻은 병이었다. 하루는 이웃집에서 길에 멍석을 펴고 내다 닦는 메주콩 두 말이 감쪽같이 없어졌는데 그 혐의를 평소에 사이가 안 좋던 순이 삼촌에게 씌워 놓았다. 두 집은 서로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옥신각신 다투다가 그 집 여편네가 파출소에 가서 따지자고 당신의 팔을 잡아끌었던 모양인데 파출소 가자는 말에 당신은 대변에 기가 죽으면서 거기는 못 간다고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당신이 콩을 훔친 것으로 소문나 버릴 밖에. 당신이 그전서부터 파출소를 피해 다니는 이상한 기괴증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건 일단 씌워진 누명을 벗기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신은 1949년에 있었던 마을 소각 때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어, 불에 놀란 사람 부지깥이만 봐도 놀란다는 격으로 군인이나 순경을 먼뽕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지레 피하던 신경 증세가 진작부터 있어 온 터였다.

(중략)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순이 삼촌’이 신경 쇠약증에 걸린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콩 두 말을 훔쳤다는 억울한 누명을 쓴 뒤로 지독한 결벽증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누명을 썼음에도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순이 삼촌은 파출소를 피해 다니는 기괴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그의 신경 증세를 유발한 1949년의 마을 소각 때의 사건 때문으로, 순이 삼촌은 <보기>에서 언급한 특정 사건의 피해자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돼지 몰듯 사람들을 몰고 우리 시야 밖으로 사라지고 나면 얼마 없어 일제 사격 총소리가 콩 볶듯이 일어나곤 했다. 통곡 소리가 친지를 진동했다. 할머니도 큰아버지도 길수 형도 나도 울었다. 우익 인사 가족들도 뉘 놓고 영영 울고 있었다. 우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외양간에 매인 채 불에 타 죽는 소 울음소리와 말 울음소리도 처절하게 들려왔다. 중년부터 시작된 이런 아수라장은 저물녘까지 지긋지긋하게 계속되었다.

길수 형이 말했다.

“그때 혼자 살아난 순이 삼촌 허는 말을 들으란. 군인들이 일주 도로뽕 읍광진 밭에다가 사름들을 밀어붙였는데, 사름마다 밭이 안 들어가겐 밭담 우엔 었디어전 이마뽕을 쫓아 피를 찰찰 흘리며 달려 달린 하던 모양입니다.”

“쫓쫓쫓, 운동장에 뱉겨져 널러진 입자 없는 고무신을 다 모아 놓으면 아마도 가매니로 하나는 실히 되었을 거여. 죽은 사람 몇 백 명이나 되까?”

하고 작은 당숙이 말하자 길수 형은 낮을 모질게 찌푸리며 말을 씌어뻘었다.

“면에서는 이 집에 고무마 뗏 가마 내고 저 집에 유채 뗏 가마 소출 냈는지는 알아 가도 그날 죽은 사람 수효는 이날 이 때 한 번도 통계 잡아 보지 않으니, 내에 참. 내 생각엔 오백 명은 넘은 것 같은디. 한 육백 명 안 되까 마썸? 한 번에 오륙십 명씩 열한 번에 몰아가시니까.”

열한 번째로 끌려가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운수 대통한 사람들이었다. 때마침 대대장 차가 도착하여 총살 중지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 불행한 사건에도 예외 없이 ‘만약’이란 가정이 따라왔다. 만약 대대장이 읍에서부터 타고 오던 지프차가 도중에 고장만 나지 않았더라면 한 시간 더 일찍 도착했을 터이고, 그렇게 되면 삼백 명이나 사백 명은 더 살렸을 것이다. 따라서 희생자는 백 명 내외로 줄어든 것이고, 또 적에게 오염됐다고 판단된 부락을 토벌해서 백 명 정도의 이적 행위자를 사살했다면 그건 수궁할 만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피살자 육백 명이란 수효는 옥석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사격을 의미했다.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중략) 이후 과거 1949년에 있었던 마을 소각작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을 소각작전은 마을을 소각하며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는 작전으로, 친척들은 혼자 살아남았던 순이 삼촌의 말을 통해 들었던 사건의 실체를 되짚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사람들을 모두 죽이던 군인들은 대대장의 명령에 따라 총살을 증지하는데, 대대장의 차는 약 600여 명을 죽인 이후에야 도착합니다. 따라서 서술자인 '나'는 피살자 육백명이라는 수효는 무차별 사격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를 비판합니다.

“고모부님, 대대장이 말한 차 고장은 핑계가 아니까 마썸? 일개 중대장이 대대장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가 이서 마썸?”

고모부는 그 당시 토벌군으로 애월면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할 터였다. 고모부는 한때 인근 부락인 함덕리에 주둔했던 서북청년으로만 구성된 중대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마침 사건 수개월 전에 애월로 이동해 갔던 것이었다. 신혼 초라 고모도 따라갔었다.

“그 당시엔 중대장 즉결 처분권이란 것이 있을 때였쥬. 또 그들이 전투 사령부의 작전 명령에 따라 행동했던 해도 작전 명령을 잘못 해석하였을 공산이 커. 난 졸업 생활해서 잘은 모르지만 아마 그것도 견벽청야(堅壁淸野) 작전의 일부일 거라. 쉬운 말로 소개 작전이란 거쥬. 견벽청야 작전이란 것이 뭐냐면 손자병법에서 따온 것이라는데, 공비를 소탕할 때 먼저 토벌군으로 벽을 쌓아 병풍을 만들고 그 후 들을 말끔히 청소하는 거라. 산간벽촌을 일일이 다 보호할 수 없는 것 아니냐니 말이여. 그러니 일정한 거점만 확보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원과 물자를 비워 버려 공비가 발붙일 여지가 없게 하자는 궁리이었쥬. 그러니 인원과 물자를 비워 버리라는 대목에서 그만 잘못 일이 굴러진 거라. 작전 지역 내의 인원과 물자를 안전 지역으로 후송하라는 뜻이 인원을 전원 총살하고 물자를 전부 소각하라는 것으로 둔갑하고 말아시니 말이여.”

“아니, 고모부님도 참, 그 말을 끈이들엄수파? 그건 옷대가리들이 책임을 모면해 보겐 둘러대는 핑계라 마썸. 우리 부락처럼 폐죽음당한 곳이 한둘이 아니고 이 섬을 뺀 돌아가명수없이 많은데 그게 다 작전 명령을 잘못 해석해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우파? 말도 안 되는 소리우다. 이 작전 명령 자체가 작전 지역의 민간인을 전부 총살하라는 게 틀림없어 마썸.”

- 현기영, 「순이 삼촌」 -

✓ 필수적 독해 태도

① 작품 내 상황 파악하기

② 인물의 심리·태도 파악하기

<보기>에서 언급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모부는 사건의 가해자인 '전투 사령부'에서 내린 명령을 군인들이 잘못 해석해 벌어진 안타까운 사고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나'는 그것은 변명일 뿐이라며 '작전 지역의 민간인을 전부 총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했다시피 가해자들의 기억에 명분을 부여한 논리인 '견벽청야' 작전을 잘못 오해했다는 고모부의 말에 반감을 가지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기억이 서로 다르게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품 총평

과거 실제 역사적 사건을 기반으로 한 소설으로, 피해자인 '순이 삼촌'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점을 유의해 읽어어나간다면 해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니 사건의 흐름만 잘 잡아낸다면 쉽게 해석 가능할 것입니다.

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

① [A]는 과거 사건에 대한 추측의 진술을 통해 인물의 위선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A]는 과거 사건에 대한 사실적인 진술을 통해 인물의 트라우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추측이 아닌 실제 사건에 대한 소개일 뿐 아니라, 순이 삼촌이 위선적인 인물 역시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② [B]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나란히 배치하여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 [B]는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고, 그 사건을 겪은 인물들의 우는 모습을 통해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성격을 지닌 현재의 사건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A]와 [B]는 모두 감각적으로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세밀하게 전달하고 있다.

→ [A]의 경우 감각적인 배경묘사가 드러나지 않으며, 이를 통한 심리 변화 또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B]의 경우에는 '콩 볶듯이' 들려오는 총소리와 '통곡소리' 등을 통해 감각적으로 배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인물의 심리 변화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④ [A]는 공간을 병치하는 방식을 통해, [B]는 시간을 교차하는 방식을 통해 사건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A]의 경우 단순히 메주콩을 흠뻑했다는 누명을 쓴 순이 삼촌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공간 또한 누명을 썼던 그 장소 하나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의 경우 시간을 교차하지 않고 군인들이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으며, 사건의 원인 또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⑤ [A]는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B]는 직접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 [A]는 '~라고 했다.'와 같이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의 경우 '나도 울었다'라는 서술자의 말을 보아 직접 경험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① 일제 사격 총소리가 콩 볶듯이 일어나곤 했다.
- ② 소 울음소리와 말 울음소리도 처절하게 들려왔다.
- ③ 입자 없는 고무신을 다 모아 놓으면 아메도 가메니로 하나는 실히 되었을 거여.
- ④ 옥석을 가리지 않은 무차별 사격을 의미했다.
- ⑤ 마침 사건 수개월 전에 에월로 이동해 갔던 것이었다.

① ㉠: 옴팡진 밭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일어난 참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 옴팡진 밭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일제 사격'에 당해 죽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② ㉡: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참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 마을에서 외양간에 매인 채 불에 타 죽는 소와 말들의 울음소리를 통해 비참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③ ㉢: 운동장에서 끌려 나가 희생당한 사람들의 수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운동장에서 끌려 나가 희생당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입자 없는 고무신'을 모아 놓으면 '가메니로 하나'는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통해 희생당한 사람들의 수가 많았음을 알게 해줍니다.

④ ㉣: 운수가 좋아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핑계 삼아 무차별 사격이 자행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옥석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사격'을 했다는 것에서 언급한 '이적 행위자'인지 민간인인지 전혀 구별하지 않았고 무차별적으로 사격을 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수가 좋아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핑계 삼아 무차별 사격을 자행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⑤ ㉤: 고모부는 당시 운동장에서 마을 사람들이 겪었던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고모부는 당시 '수개월 전에 에월'로 떠나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겪었던 일을 직접 목격하지 못합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①

<보 기>

과거의 사건에 대한 개인의 기억이 강렬할 경우, 이 기억은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여러 사람과 공유되면 기억의 집단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기억은 같은 사건이라도 기억 주체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의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기억과는 다르게 구성된 가해자들의 기억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들의 기억에 명분을 부여한 논리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게 된다.

① '전투 사령부'의 '견벽청야' 명령은 역사적 사건의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스스로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 나중에 꾸며낸 것이겠군.

→ '전투 사령부'의 '견벽청야' 명령은 역사적 사건의 가해자들이 실제로 내린 명령으로, 나중에 꾸며낸 사건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단, '견벽청야' 명령이 내려진 것은 맞으나 인원을 후송하라고 했으나 명령 전달에 착오가 생겼다는 부분은 나중에 꾸며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길수 형'이 '순이 삼촌'에게 전해 들은 '그메'의 사건을 방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기억이 여러 사람과 공유되는 장면으로 볼 수 있겠군.

→ '길수 형'이 '순이 삼촌'에게 들었던 '군인들이 일주~ 하던 모양입니다' 부분을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의 기억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③ '군인이나 순경'을 먼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피하는 '순이 삼촌'의 모습은,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개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군인이나 순경'을 먼빛으로만 봐도 질겁하고 피하는 '순이 삼촌'의 모습은 과거의 '1949년에 있었던 마을 소각'에 대한 기억이 순이 삼촌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④ '그건 옷대가리들이 책임을 모면해 보젠 둘러대는 핑계라 마썸.'이라는 말에는, 가해자들의 기억을 구성한 논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그건 옷대가리들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둘러대는 핑계'라고 생각하는 '나'의 말을 통해 가해자들의 기억을 구성한 논리에 대해 '핑계'라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⑤ 당시 토벌군이었던 '고모부'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길수 형'이나 '나'와는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 피해자들과는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겠군.

→ 당시 토벌군이었던 '고모부'는 '사건 수개월 전에 애월로 이동해 갔'으므로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는 피해자들과 처한 상황이 달랐기에 '견벽청야' 작전에 대한 지휘부의 변명을 믿게 됩니다.